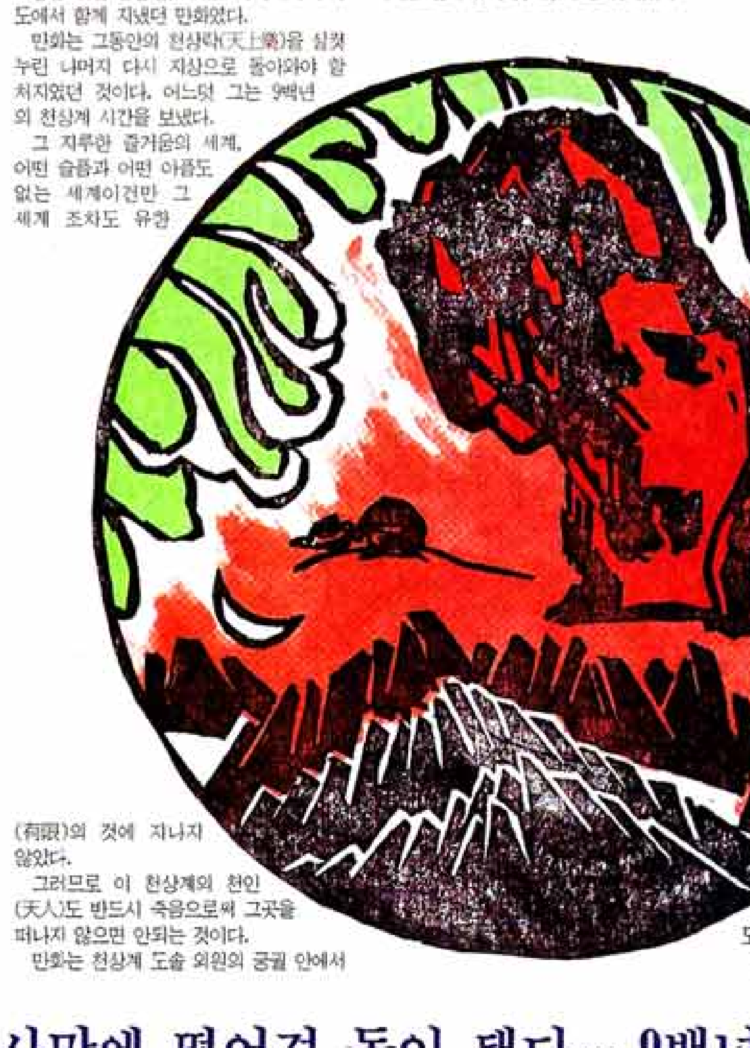
고은 불교대하소설

▶ 62 ◀

합두가 태어난 곳

합두 별은 사막에 떨어져 돌이 됐다… 9백년 천상락을 누린 만화도…

> "즐거움이 가득한 천상계라 하더라도
> 다른 세계와 다르지 않다
> 모든 즐거움 뒤는 반드시 고통이니라"



불이는 하나의 별로 빛나면서 합두의 별과 전혀 별개의 것이 되었다. 아니 합두는 불이와 하나가 된 불덩어리 기둥에서 떨어져 나간 뒤 그의 별은 더 높은 하늘 속으로 마치 팔의 힘이 센 총각이 던진 돌팔매처럼 내던져져서 인간계가 아닌 천상계로 들어간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가 마음을 가다듬은 뒤 헤어진 합두의 행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으나 끝내 알 길이 없었다.

하늘 속의 별들은 별과 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몇천만유순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웃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빛과 빛 사이의 추상적인 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떤 시인이 공후(箜篌-하프)의 줄을 퉁기며 노래하기를 "어찌 지상(地上)의 우정만 자랑하랴. 저 높디높은 허공 속의 별과 별 사이로 그 몇백광년(光年)의 거리를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소근거리는 그 우주의 우정을 잊을 수 없나니"라고 하였다.

합두는 그런 별이 되어 천상계에 속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불이가 저 중국 오지의 누란에 남아있는 그 폐허 흙덩어리 위 불탑을 내려다보는 일도 합두가 간 곳을 모르게 된 뒤의 일이었다. 그것은 합두를 체념하기 시작한 불이의 비애와도 같은 새로운 시도였다.

거기에 누란의 불탑이 보였던 것이다. 탑은 왜 그곳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의심할만큼 뜻밖에 그곳에 있는 것이었다. 아주 볼품 없는 고독으로써.

지금은 사막일 뿐이지만 누란이라는 나라가 번영할 때에는 그 일대는 물이 풍족한 오아시스의 도시가 세워져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것도 몇개의 커다란 불교사원과 불탑 그리고 승방을 배치한 구역을 중심으로 삼은 아주 커다란 도시의 자취였다.

그 남쪽으로 중국의 군대가 주둔한 병영의 자취와 농가들이 즐비한 전원의 자취, 수많은 미이라로 된 사체(死體)를 그대로 놓아둔 묘지들이 하나하나 옛 시대의 영화를 재구성해 주고 있었다.

불탑에서는 고대 그리스 양식이 반영된 간다라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있고 미이라에 걸쳐진 옷에는 로마의 신 헤르메스의 모양을 짜서 만든 모직물 따위가 너덜너덜 남아있었다.

페르시아의 보석으로 된 목걸이, 로마풍의 청동 램프도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이 국제적인 도시의 문화가 불이의 별빛으로 비추어질 때까지는 몇천년 동안 지상에서는 오랜 부재(不在) 일 따름이었다.

기원전 77년까지 있던 왕국이 번영을 누리다가 망한 뒤로도 매우 번화한 국제시장으로 4세기 중엽까지 존속되면서 중국에 가깝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중국인의 서방진출에 의해서 그 시장의 실권이 확보되거나 아예 중국 둔전병(屯田兵)이 파견되어 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왕국이 망한 1백년 전에 한 왕국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누란왕국이었다.

바로 그 누란시대의 불탑 하나만이 남아서 지난 세월의 성쇠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부터 불이는 새삼 이 세상의 덧없는 역사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누란의 사막에 하나의 별이 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긴 빛의 꼬리가 달린 합두의 별이었는데 그것이 누란의 불탑 부근의 사막에 떨어지자마자 한 덩어리의 돌로 박혔다. 실로 뜨거운 돌이었으므로 모래조차도 태워버릴 정도였으나 그 모래 속에서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만 죽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돌은 하나의 생명체였으므로 그 수많은 미물들이 죽어가며 외치는 비명들을 다 들어야 하였다.

"앗!"

"아앗!"

"앗!"

합두는 이렇게 수많은 모래 속의 미물들을 죽인 뒤 점점 식어가는 하나의 돌덩어리로부터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거니와 그는 천상계에 들어 가자마자 어떤 천상인이 등을 떠밀자마자 그 길로 이렇게 지상의 사막에 떨어져야 하였다.

"이곳을 천당이라고 여기고 온 중생이야말로 어리석도다. 어서 떠나거라. 나도 곧 떠날터이다."

아마 이런 호령과도 같은 말을 합두의 별은 들었던 것 같다.

합두의 별이 떨어진 며칠 뒤 또하나의 커다란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그 별이 천상계 도솔천 외원에 살고 있던 만화의 별이었던 것이고 합두에게 호령을 했던 천상인도 바로 사바세계 무욕도에서 함께 지냈던 만화였다.

만화는 그동안의 천상락(天上樂)을 실컷 누린 나머지 다시 지상으로 돌아와야 할 처지였던 것이다. 어느덧 그는 9백년의 천상계 시간을 보냈다.

그 지루한 즐거움의 세계,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도 없는 세계이건만 그 세계 조차도 유한(有限)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천상계의 천인(天人)도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만화는 천상계 도솔 외원의 궁궐 안에서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있었지만 반드시 그곳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본디 천상계는 일종의 허공상태이기도 하므로 천인은 언제나 날아다니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온갖 7보(七寶)와 아름다움이 지극한 장식으로 된 장엄하고 다채로운 궁전으로 된 곳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공 속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 도솔천 내원이나 외원의 세계 자체가 날라다니는 낙원인 것이다.

그런 낙원의 여기저기를 마음껏 날아 다니며 하늘의 음악과 하늘의 맛있는 음식 뿐 아니라 온갖 아름다움과 쾌락으로 넘치는 천녀(天女)와의 사랑까지도 얼마든지 누리는 것이었다.

또한 천상계는 향기로 가득찬 미풍이 불고 심지어 5색 무지개가 연주하는 5선율의 소리와 언제나 몽롱한 취기를 가져다 주는 술의 즐거움이 자유자재로 찾아오는 것이었다.

만화는 이러한 천상계의 생활에 마치 전생의 인간계 바다에서 난파선에서 살아났을 때처럼 몸에 흠뻑 젖어있게 된 것이었다.

"이 즐거움과 행복이 나의 것이란 말인가!"

"이 즐거움과 행복이 한바탕 꿈이 아니란 말인가?"

이같은 생각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따위야말로 얼마나 하잘것 없는 것인가를 확인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와서 싹 쓸어 가버리는 것이었다.

"즐겁도다!"

이 말의 되풀이조차 필요없었다. 어떤 기쁨의 절정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도 감탄사도 필요없는 그런 궁극의 즐거움 가운데서 차라리 만화는 그런 즐거움 하나하나가 언제나 새로운 도취였다.

그렇게 해서 천상계 9백년의 세월이 다 간 것이다. 굳이 그 시간을 사바세계 인간계의 시간의 척도에 맞출 것은 아니거니와 그 긴 천상락의 시간은 어느덧 그 끝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막을 수 없었다.

만화는 몇번인가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천녀 아사(阿斯)로부터 다음과 같은 예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몇마디의 향기로운 대화를 주고 받는 7보 구름 속의 비밀장소와도 같은 허공에서였다.

"만화천인이시여,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주신 즐거움은 아직까지도 제 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가 노는 것처럼 제 몸 속에서 그 즐거움에 열중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사옵니다."

"아사천녀시여 나의 몸 속에도 당신의 그 눈부신 몸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즐거움이 언제나 살아있어서 차라리 다른 즐거움이 필요없을 정도이옵니다."

"아 만화시여. 제 천상의 영광 가운데 어찌 당신이 자리잡지 않겠사옵니까? 저에게는 당신이 베풀어주는 그 지극한 즐거움 때문에 이토록 아름다움을 이어갈 수 있사옵니다."

"아사시여! 아사시여! 나의 아사시여! 다음 생(生)에서도 다시 만나 우리의 천상락을 길이길이 이어가시이다."

그때였다. 이제까지 온몸에 땀이 돋아나고 있던 젖은 아사의 몸이 문득 슬픔으로 덮이면서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아니옵니다. 만화천인이시여. 당신은 다른 인연이 시작되고 있사옵니다. 이미 저는 지난 날의 일이 되고 말 이 천상이야말로 저에게는 즐거움이란 얼마든지 슬픔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았사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의 시간으로 며칠이 지났다. 이제까지 몇백년을 살아오는 동안 단 한번도 아픈 적이 없던 만화에게 갑자기 그의 천상 날개죽지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그 아픔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것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하여 몹시 아픈 것으로 되었다.

"천상! 이 천상세계가 이렇게 아픈 곳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아픔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아주 극한적인 고통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앗!"

"앗!"

만화는 방금 무지막지한 고문 하수인으로부터 아주 야만적인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하였다.

그때였다. 허공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조차 하나의 고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곳은 그대가 누린 것처럼 즐거움으로 가득한 천상이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의 천상에서 물러갈 때에는 이제까지의 즐거움에 대한 어떤 마무리를 위해서도 마땅히 천상이 아닌 곳의 고통을 겪어야 물러갈 수 있다."

"…"

"아마 그대는 알 것이다. 이 천상계의 저 아래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

"그 지옥이라 해도 천상계를 물러갈 때의 고통 16분의 1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곳을 물러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짐작하리라."

"앗"

"함부로 소리치지 말아라. 아무리 천상계라 하더라도 이곳은 다른 다섯세계와 똑같이 괴로움의 세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대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모든 즐거움 뒤는 반드시 이런 고통이 있느니라."

그림 · 조향숙

일간스포츠 연재중
난치병·불치병 휘어잡는 책
「김윤세의 신토불이건강」
인산의학의 모든것, 각 질병별 처방 정리
麥浦院 736-3171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 비만 관리 시술법
: 음양오행 건강 치암법
장심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404-9521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畵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 성별 : 남
■ 연령 : 만 18세~25세(군필 또는 면제자)
■ 학력 : 제한 없음
■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 02) 3673-0524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장 0346-571-9538
호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최신「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대한교육평가원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